



경희대학교

2020학년도

#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사회계)

[6월 1일(토)]

지원학부(과) ( )

수험번호

성명 ( )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시고, 다른 펜으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 공란으로 처리합니다.
4.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또는 감점 처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
5.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야 하고 수정도구(수정액 또는 스티커)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0점 또는 감점 처리합니다.
6.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논제별로 요구한 분량 이내로 논술하시오.
7. 문항 별 분량 제한을 준수하고 답안지는 반드시 1장만 사용하시오.
8. **사회계 문제지는 총 2장 3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 [가]

철거를 앞둔 불량주거 지역에 대한 현장 연구에 들어간 것은 1986년 여름이다. 연구자들은 차림새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잘못하면 북부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부유한 아줌마’티가 나지 않아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허술해 보여서도 안 되며, 연구자처럼 보이지만 동네 바깥 사람으로 금방 눈에 띄어서도 안 될 것 같아 수수한 옷차림에 필기도구를 담은 가방을 하나씩 들고 남성시장을 따라 걸어 올라갔다.

길 양쪽은 가게지만 그 가운데는 약간 높은 가판대를 갖춘 노점상이 쪽 들어서 있고 가판 노점상과 가게 사이 양쪽에는 좌판 노점상이 들어앉아 있어서 장 보는 사람들과 상인 어느 쪽이 더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붐볐다. 재개발지로 선정되어서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동네였지만 온 동네가 일터 같은 느낌을 주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네”였다.

그들의 가난은 집안에 들어섰을 때에야 실감하게 되었다. 길가에 면한 어느 곳이나 문을 열면 순간 부엌이 나타나고 장지문을 열면 바로 온 식구들이 모여 사는 방 한 칸이 있었다. 주민들 대부분은 두세 평짜리 방 한 칸에 서너 명 이상이 살고 있었다. 따라서 온 식구가 반듯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집은 별로 없었다. 그 때 처음으로 배운 단어가 ‘칼잠’이라는 단어였다. 반듯하게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누워서 마치 일열 중대처럼 한쪽으로 눕는 것인데 알뜰하게 옆으로 몸을 세워 누워야 되기 때문에 마치 칼을 세워 놓은 듯하다는 데서 온 단어이다. 칼잠이라는 단어는 그곳에서 연구를 하는 내내 매우 상징적인 단어로 남아 있었다. 잠잘 때도 반듯이 누워 잘 수 없는 사람들의 공간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한 셈이었다. 이 칼잠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너무 생소하고 신기해서 수업 시간에 연구 현장과 칼잠 이야기를 했다가 “뭐가 그리 신기하다고”라는 표정의 학생을 보게 되었다. 고개를 외로 끈 그 학생의 눈빛에서 “제가 그런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라는 무언의 음성을 보았다. 밑으로부터 사회학 하기의 출발점이었고 가난에 대해 내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 [나]

범죄율 감소에 대한 낙태 허용의 효과를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는 모든 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기 전부터 낙태를 허용했던 다섯 개의 주를 대상으로 범죄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워싱턴, 알래스카, 하와이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있기 적어도 2년 전부터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리고 다섯 개 주는 다른 45개 주와 워싱턴 D.C.보다 훨씬 전부터 범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1988~94년에 이 초기 낙태 허용 주에서는 폭력범죄가 다른 주와 비교해 13%나 감소했다. 1994~97년 사이 살인사건 발생률은 다른 주보다 23%나 더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1985년 이래로 높은 낙태율을 보인 주들은 낙태율이 낮은 주에 비해 약 30% 높은 범죄율 감소 현상을 보였다. 더욱이 1980년대 말 이전, 즉, 낙태 합법화의 영향을 받은 최초의 아이들이 최고의 범죄 성향을 보이는 나이에 이르기 이전에는 이들 주에서 낙태와 범죄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실제로 범죄 발생 경향을 뒤집은 사건임을 시사한다.

낙태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범죄 감소 요인이었다는 발견은 말할 필요도 없이 대단히 불쾌한 일이다. 범죄의 감소는 낙태 허용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혜택’일 따름이다. 하지만 개인의 슬픔이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된다는 개념이 맘에 안 든다고 종교나 도덕적 근거를 들어가며 낙태에 반대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1973년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서,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뒷면에 계속>

## [다]

우리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9명을 만나서 이들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들었다.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주 종목은 전단 돌리기와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근무, 그리고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는 것인데, 특히 ‘오토바이 배달’은 남자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아르바이트였다. 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돈이 필요한 이유는 부모가 주는 용돈이 부족해서, 특별한 물건을 사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였다. ‘고등학생이 오락기를 산다고 엄마한테 돈 달라기 뭐해서’, 또는 ‘코스프레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돈 때문에’ 하는 예도 있고 ‘재미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학생 중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좋아하는 일 또는 소질이 있는 일을 아르바이트로 연결한 경험은 거의 없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것은 ‘경제관념 및 성취감’, ‘시간 관리’, ‘직장 생활에서의 위계 관계 등 대인 관계에 대한 경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사회적 관계망의 확장’, ‘다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것’ 등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잃은 것은 ‘학업에 지장을 주는 것’, ‘아르바이트로 목돈을 벌게 되지만 이것을 함부로 써서 절제가 안 된다는 점’, ‘아르바이트가 비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배운 것을 고려해 보면 청소년에게 아르바이트는 ‘살아 있는 사회 경험’이었다.

## [라]

야구는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풍성한 자료를 쏟아내는 분야인지도 모른다. 지난 140년 동안 메이저리그 경기장에서 펼쳐진 거의 모든 내용이 꼼꼼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수백 명이나 되는 메이저리그들이 해마다 경기를 펼친다. 한편, 야구는 팀 경기이지만 매우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컨대 투수는 로테이션 순서에 따라 등판하고 타자는 타순에 따라 타석에 들어서는데, 투수나 타자 모두 개인 통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점은 미식축구와 대비가 된다. 미식축구에서는 공격라인이 강력하면 아무리 변변찮은 러닝백이더라도 올스타팀에 선발될 수 있다. 농구에서 포인트가드와 파워포워드는 시너지 효과를 낸다. 야구에서는 복잡성과 비선형성에 영향을 받는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우연적인 것들을 쉽게 걸러낼 수 있다.

야구 예측가들은 덕분에 편하게 살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가설이든 간에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가설을 채택할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다. 그것도 매우 높은 수준의 통계적 만족도 속에서 말이다. 경제나 정치 분야의 자료는 야구 자료에 비하면 훨씬 적다. 야구는 한 해에만도 수많은 경기가 치러지면서 수많은 자료가 쏟아지지만, 대통령 선거는 4년에 겨우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는다. 그러니 경제나 정치 분야의 예측은 곧잘 엉뚱한 곳을 가리키곤 한다.

## [마]

스스로 고전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회과학자에게 사회과학은 한 가지 기예(craft)의 실천이다. 학계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사상가들은 연구와 생활을 분리하지 않았다. 그들은 연구와 생활 두 가지를 서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듯하며, 어느 한쪽을 다른 한쪽의 강화를 위해 이용하고자 한다. 학자가 된다는 것은 경력의 선택인 동시에 생활 방식의 선택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지식 노동자는 자기 연구의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형성한다. 자신의 잠재 능력과 기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는 훌륭한 장인의 자질을 중심으로 하는 성격을 구축한다.

이는 여러분의 생활 경험을 지적 연구에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는 뜻이다. 즉 자신의 생활 경험을 끊임없이 해석하고 검토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장인 기질은 여러분 자신의 중심이며, 여러분은 스스로 연구한 모든 지적 산물에 개인적으로 관련된다. ‘경험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의 경험에 대한 능력을 규정한다는 의미이다. 여러분은 사회과학자로서 이렇듯 정교한 상호작용을 통제하고 스스로 경험한 것을 파악하고 식별해야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만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성찰을 인도하고 시험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적 장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해답은 자료철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런 자료철에는 개인적인 경험과 전문적인 활동, 진행 중인 연구와 계획된 연구가 포함된다. 나는 피할 수만 있다면 숫자로 이루어지는 연구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조사원이 없으면 대단히 힘들고, 조사원을 고용하면 조사원 자체가 더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킨다.

따라서 장인으로서의 사회과학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에게 나는 다음과 같은 훈계와 경고를 하려 한다. 훌륭한 장인이 되라. 엄격한 일련의 절차를 피하라. 무엇보다도 사회학적 상상력을 개발하여 이용하도록 노력하라. 방법과 기교의 승배를 피하라. 솔직한 지적 장인의 부흥을 추구하고 스스로 그런 장인이 되도록 노력하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방법론자가 되게 하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론가가 되게 하고, 이론과 방법이 한 기예(craft)의 일부가 되게 하라. 학자 개개인의 우위를 지지하고, 기술자들의 조사팀의 우세에 반대하라. 인간과 사회의 문제에 주체적으로 대처하는 지성인이 되라.

## [바]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미국의 1인당 생산은 1820~2012년 내내 연간 1.5~2퍼센트로 거의 같은 성장세를 보였다. 확실히 성장세는 1930~1950년에 연간 1.5퍼센트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둔화되었고, 1950~1970년에는 2퍼센트를 약간 넘어섰으며, 1990~2012년에는 1.5퍼센트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했다.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큰 고통을 겪은 서유럽에서는 변동 폭이 훨씬 더 컸다. 1인당 생산이 1913~1950년에 (연간 성장률이 0.5퍼센트를 조금 웃도는) 정체 현상을 보이다가 1950~1970년에는 연간 성장률이 4퍼센트로 치솟았다. 이후 성장률은 급속히 떨어져 1970~1990년에는 미국보다 조금 높은(2퍼센트를 약간 넘는) 수준을 보였고 1990년~2012년에는 1.5퍼센트에 그쳤다.

<뒷면에 계속>

가장 중요한 점은 1인당 생산 증가율이 1퍼센트라는 것은 사실 대단히 빠른 것이며,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 세대를 걸쳐 이루어진 성장률을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 될 것이다. 30년이라는 한 세대가 지나면 연 1퍼센트의 성장률은 35퍼센트 이상의 누적 성장을 가져오며, 연 1.5퍼센트의 성장률일 경우 누적 성장은 50퍼센트 이상이 된다. 거시적 통계를 통해 거시적 사회 발전과 변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누적적 성장률은 생활양식과 고용에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유럽, 북미, 일본은 1인당 생산의 연간 성장률이 1~1.5퍼센트대에서 오르내렸으며, 사람들의 삶에는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1980년에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도 등장하지도 않았고, 비행기 여행도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요즘과 같이 첨단 의학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고, 소수의 사람만이 대학에 다녔다.

### [사]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전통 중에는 사회·문화 현상도 자연 현상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사회·문화 현상에 대하여 실험이나 관찰 등을 통해 얻은 결과를 계량화하는 과정을 거쳐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고 한다. 사회·문화 현상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조작적 정의의 과정을 거친다. 이런 방법은 객관화된 자료 및 통계를 활용하여 연구자의 주관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고, 정밀한 분석과 현상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인간 행위의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계량화하기 어려운 분야를 연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와 달리,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사회·문화 현상 연구는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것인데, 주요 연구 대상인 사회적 행위에 담긴 인간의 행위 동기나 목적은 자연 현상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인간이 사회적 행위를 하는 동기나 목적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행위의 계량화가 아니라 그 행위 이면의 의미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의미를 발견하거나 행위자가 만들어내는 주관적 세계와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다. 그러나 연구자의 주관 개입이 염려되어 연구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으며,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 [문제 I]

[가]~[바]를 비슷한 관점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500자 이하: 배점 30점]

### [문제 II]

제시문 [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와 [다]를 평가하시오. [601자 이상~700자 이하: 배점 40점]

### [문제 III]

어느 한 야구 평론가는 야구 성적의 심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 명의 야구선수 A, B, C 각각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야구 평론가가 인터뷰를 통해 야구선수의 심적 요인을 정확히 파악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해당 인터뷰는 성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야구 평론가는 인터뷰가 성공할 확률이 각각  $p$ 로서 같다고 예상한다.

인터뷰의 성공(S)과 실패(F)에 관한 8가지 경우의 수를 나타내고, 인터뷰를 성공한 야구선수의 수를 확률변수  $X$ 로 정의하여 확률분포표를 작성하시오. 이를 토대로  $X$ 의 기댓값(평균)을 구하시오. 만약 야구 평론가가 이 기댓값이 1보다 클 때만 전체 인터뷰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p$ 의 조건을 구하시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수식 및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배점 30점]